

네트워크 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오월여성과 인권도시”

정 현 애
[한국, 학교법인 홍복학원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 인권 도시의 확산을 위해 개최한 지 올해로 제10회째이다. 그동안 많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 주요한 성과로 2013년 '광주인권도시 원칙(Gwangju Gui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 채택, 2013년 10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공동체 주체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제인 '삭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출발점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새겨볼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인권도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국내외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 등재되면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었다.¹⁾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참여한 주체들에 대한 활동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더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18에 적극 참여한 오월여성에 대한 기억의 문제는 인권도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자신의 삶 주체임과 동시에 자기 삶의 터전인 공동체 역사 주체로 기억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시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을 주체로 상정할 때 특정한 정체성으로 '오월여성'을 비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좁은 의미로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여성만을 지칭할 수도 있고, 1980년 당시 10일간의 투쟁을 의미하는 오월항쟁에 참여한 여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 5·18의 기억투쟁인 오월운동에 참여한 여성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넘어 5·18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을 말 할 수도 있다.

이 시간에는 시기적으로 1980년 5월 당시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과 오월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자 석방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오월여성 활동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노력도 알아보고자 한다.

군사독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전통사회인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해왔다.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여성들을 물론이고 가족들이 참여한 경우 그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5·18과 관련한 여성의 활동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여성이 '자신과 역사의 주체'로 확립하는 일이며, 동시에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으며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 주체로 살아가 수 있을 때 실현될 것이다.

1) 5·18기념재단 www.518.org/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18의 역사성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동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용기 등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은 전 세계가 인권·민주주의·법치 등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로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2. 오월여성 활동

■ 항쟁기간 동안의 활동

1) 조직적인 투쟁

항쟁기간 동안 여성들은 항쟁이 이루어진 모든 공간에서 활동하였다. 항쟁 이전의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권, 종교단체의 범주에 있었던 송백회, YWCA, 광대, 들불야학, JOC에 참여하여 조직을 만든 경험자들도 있었고, 사회운동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을 하였다. 조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항쟁 초기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항쟁이 진행되면서 거리나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여성들도 함께 활동하였다. 조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던 곳은 항쟁 전의 사회운동 권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녹두서점이었다. 이후에 YWCA, 도청으로 이어졌다.

- (녹두서점) 녹두서점은 전국 최초의 사회과학서점이었다. 주인인 김상윤은 5월 17일 불법으로 예비검속되었다. 5월 18일 광주지역에서 검속된 다른 민주인사들의 부인들이 찾아오고, 청년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의 학살행위가 자행되자 정현애와 윤상원 등은 이들을 조직하여 항쟁을 전개해 갔다. 상황실 운영(계엄군의 동태 파악, 시민군의 조직과 지원, 운동권의 연락과 조직, 타 시도와의 연락 등), 투사회보의 기획, 재정마련, 화염병 제작, 시민궐기대회 조직하고 진행하였다.
- (YWCA) 기독교 여성단체로 항쟁 이전부터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왔다. 5월 18일에도 양서조합회원, 연극단체인 광대의 회원들과 노동 교실 등이 열려 여성과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이들은 항쟁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는 5월 22일 계엄군이 물러가자 자진하여 도청으로 들어가 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유일한 여성수습위원들이었다. 녹두서점에 많은 시민이 모여들어 비좁게 되자 YWCA로 장소를 옮겨 궐기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다. 25일부터 YWCA에서의 활동은 선전·홍보도, 모금도, 리본도, 대자 보조, 식사도 등으로 분담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여성 시민과 송백회, 극단 광대의 여성회원들,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 (도청) 22일부터 도청에서는 시민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여 당국과 교섭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아라, 이 애신지 여성으로 수습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때 합류한 여성들은 대부분 어린 청소년과 청년들로 실무를 맡아 하였다. 상황실, 방송, 취사 등이었다. 5월 25일 민주화 투쟁위원회로 바뀌면서 조직화하였다. 25일부터 JOC 여성 노동자 10명을 중심으로 13명이 2교대로 팀을 짜서 26일까지 취사 활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상무관에서는 시신 수습 등에도 활동하였다. 유

홍업소종사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5월 22일 도청 수습대책위원회가 그간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회가 있었다. 수습위원들이 ‘무조건 무기 반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범시민결기대회는 5월 23일부터는 녹두서점팀을 비롯한 운동권에서 주관하여 제5차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YWCA로 옮겨 진행하였다. 문화팀 광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많은 시민이 함께하였다.

2) 가두 투쟁

여성들은 거리에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항쟁에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보, 모금, 헌혈, 차량 시위, 주먹밥 등 지원과 나눔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대동 세상을 보여주었다.

- (홍보 활동)은 언론과 방송이 광주의 진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투사회보, 가두방송, 대자보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5월 18일부터 시작한 유입물 발간은 5월 22일부터 투사회보로 일원화하여 27일 아침까지 발간되었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가두방송은 여성 선동가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내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모금활동) 초기에는 개인이나 송백회에서 충당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두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모금 운동은 도청팀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주로 YWCA에 있던 송백회 회원을 비롯한 여성들이 담당하였고 나이 어린 여고생들도 자발적으로 도왔다.
- (차량시위) 20일 민주기사들의 봉기를 매개로 차량 시위가 등장하자 여중·고생과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 차량에 탑승하여 무기점수, 관구입, 헌혈 등을 전개하였다. 광주지역과 전남지역 일원을 원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일신방직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복 차림으로 차량 시위에 합세하였다. 또한, 무장의 필요성을 느낀 여성들은 25일경 도청 안에서 총기사용법과 수류탄 투척법을 배우는 적극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 (물품 지원) 시민들은 18일 오후부터 희생을 무릅쓰고 시위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건네면서 격려하였다. 이러한 물적 제공은 공수부대의 잔악한 만행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위기의식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후방지원 활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지만 대부분 여성,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러한 물적 지원은 각 시장 노점상 아주머니들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동별 단위로 확산하였다.

- (헌혈) 5월 19일 중앙여고, 광산여고 학생들의 집단적 가둔 시위 기도와 헌혈 활동, 취사 활동 같은 항쟁에의 참여를 통해서 드러났다. 기층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를 나누는 대동세상을 이루었다.

■ 5·18 항쟁 이후 활동

항쟁 이후 5·18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역에서 구속된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유가족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섰다. 양심적인 여성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연대 활동도 이루어졌다.

1) 다른 지역의 활동

- (5·18 교육과 모금 활동)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왜곡하는 당국에 저항하여 5·18의 당시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교육하고, 모금 운동도 전개하여 모인 돈을 광주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일로 조합의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게 되었다. 또한, 청주산업선교원 활동가들도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 소식을 직접 등사기로 밀어 배포하였다.

2) 지역의 활동

- (수배자·구속자 지원) 항쟁 직후 발생한 수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들의 뒷바라지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송백희의 경우 창립 취지가 구속자들의 옥바라지여서 항쟁 이후 수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들의 지원 활동을 하였다.
- (구속자 가족회) 5·18 민중항쟁 직후, 항쟁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5·18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자 가족회’를 결성하고 조직화하여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족회의 조직과 활동도 지원을 하였다. 5·18 민중항쟁 이후 저항운동은 항쟁의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과 구속자의 가족에 의해 제일 먼저 추동되었다. 구속자 가족회와 유가족회의 활동은 오월투쟁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속자 가족회’는 재판 중인 전 기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주로 5·18 민중항쟁 진상 알리기, 구속자 석방 운동, 사형수 구명운동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 증인증거 확보 ‘전두환 광주방문 저지’, 명동성당, 미문화원 농성’ 등 활동을 하였다. 1982년 12월 5·18 민중항쟁 관련 구속자가 모두 석방된 후에도 다른 구속자 가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85년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로 계승되었다.

3. 계승 활동

- (5월여성제) 광주전남여성회는 창립된 첫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5월 여

성대회와 전국여성 5·18 모역 참배’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2009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5월여성제’가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 (오월여성단체) 2001년 ‘오월여성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06년‘(사)오월어머니 집’을 결성하였다. 유가족, 부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는 2007년 결성하여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자주적·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주체로 참여했던 오월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은 5·18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일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 소외되고 잊히는 고통도 겪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알리지도 못했던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기억의 문제는 여성운동 단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인권도시는 모든 시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회이다. 오월여성의 활동과 고통, 희생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의 문제는 5·18정신이 사회구성원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노력한 오월여성의 활동을 기억하는 일은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체로서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온전한 역사적 주체로서 설 때 민주사회는 더욱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오미란·안진, 201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사회 운동사-여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김상윤·정현애·김상집, 2019, 『녹두서점의 오월』, 한겨레신문사.